

제2공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도시계획위, 2023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 결정 토지 거래하려면 사전에 행정시장 허가 얻어야 성산읍 주민 등 지정 해제 요구... 반발 불가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 수용했다.

또 도시계획위는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구체적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만4322필지·107.651km로, 지정 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간이다.

당초 성산읍 일대는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서귀포시는 지가 상승 등 우려로 당장 해제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같은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됐다.

성산을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산읍 일부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그동안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으며 만약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이상민기자

긴급진단 위험에 노출된 제주지하수 공급체계 이원화로 적기 공급 난항

현재 제주도의 공공용수 공급체계는 생활용수인 상수도와 농업용수로 구분해 수원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이원화된 공급체계로 특정지역에서 물이 필요할 경우 용도가 달라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가뭄시 서부지역 농업용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해수가 침투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물공급 문제로 물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생활·농업용수 구분 공급 수자원 효율적 이용 저해 대체 수자원 이용도 미미 지하수 오염 가능성 증가

이 벌어졌다. 지역별 용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또 지하수 이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허가량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나 빗물과 옹천수 등의 대체 수자원 이용은 전체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량은 지난 2012년 42만t/일에서 2018년 66만2000t/일로 6년 동안 58%나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지하수(담수) 허가량은 4598공·163만t/일로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178만 6000t/일의 92.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대정(233%)과 한경(258%), 한림(174%), 애월(379%) 지역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 및 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2013년, 2017년 해수침투로 지하수 관정 27개소에 서 고염분 지하수가 유출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23개공은 수질이 회복되지 않아 원상 복구 조치했다.

상수도 유수율 재고사업(2016~2025년)과 농업용수 광역화사업(2017~2024년)은 사업 기간 장기화로 현재의 물 수요량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 대비 25% 수준으로 매우 높고 질산성 질소의 주 오염원인 질소질 비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료사용량은 2013년 18만6044t에서 2019년 24만1806t으로 크게 늘었다.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하 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증가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628개소에서 2019년 9189개소로 지난 7년 동안 39%나 증가했다.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사용량도 2009년 6579t에서 2018년 11234t으로 늘었다.

현재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 관정 4598공 가운데 2605공이 1990년대 개발된 시설로 오염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지하수 관정 자체 오염원 유입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유통저장 시설인 경우 시설 현황도 파악이 안돼 있어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류지역 지하수 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halla.com

이 취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자면 어선조합·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 회원들이 26일 추자 세머리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추자면 제공

추자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골머리'

타지방 양식장서 유입·낚시객 투기 등으로 수북 추자면, 수거인력 접근 쉽지 않아 선박 동원 처리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추자도에 속한 무인도서에 각종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수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자도에는 본 섬 이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38개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무인도서에는 도서

특성상 전라남도 일대 양식장에서 유입되는 스티로폼을 비롯한 해양쓰레기와 낚시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들이 밀려든다.

그렇지만 무인도서인데다 평소 정화활동을 하는 바다키퍼 등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아 해양쓰레

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추자면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동원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입차 및 어선조합 등 지역단체의 협조 등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

추자면은 지난 26일에도 추자면 어선조합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에서 체누기 어선과 낚시

어선 30여척을 이용해 무인도서 중 하나인 세머리섬(우두도)에서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 양만 해도 5t에 이른다. 쓰레기 수거는 선박과 함께 긴 줄에 쓰레기를 담은 자루를 묶어 수작업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추자면 관계자는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세머리섬을 비롯 직구섬이나 청도 등 비교적 큰 섬을 중심으로 선박을 동원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형기자

2021년도 (연25회)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근계 시하 만추지절에 삼가 귀하의 건승하심을 앙축드리오며 평소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70여년전 일제가 도발한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전장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넋은 고향에 오지 못 하고 지금도 구천을 헤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 하시어 영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태평양전쟁희생자위령탑 (서귀포시 약천사경내)

2021년 10월 일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강덕림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주60+교육센터(도남) 무료교육 교육생 모집

실버운동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생 3모작에 도전하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일정	교육내용
실버운동지도사 양성과정	11.08(월)~11.10(수) 13시~18시	- 노인의 정의와 개념 - 실버운동 (노레스트게임,댄스) 지도 방법 - 순수회와 율동 등

* 신청대상: 제주도민 만60세 이상 (1961년 11월 1일 이전 출생자)
* 수강료: 전액무료
* 교육장소: 제주시 도남로 142, 3층 (사)치매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대강당
* 신청방법: T.064-727-1297
* 자격증비는 별도입니다
* 신청기간: 21.10.29~11.07 (선착순 20명)

주최: (사)치매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엑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엑스 제품

왜 와이드엑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드엑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10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샵샷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제주서비스센터